

출애굽기 7 -10 장 아홉가지 재앙들

7: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7:20**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21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8:6**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8:17**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8:24**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 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9:6**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9:10**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9:25**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26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10:14**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 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10:22**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 7 장부터 10 장까지는 아홉가지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위에 보여드린 것은 그 재앙들이 언급된 구절들을 간추린 것입니다. 처음 아홉가지 재앙들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열번째 재앙은 유월절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됩니다. 5 장 2 절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다가오는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알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장 17 절, 8 장 10 절, 8 장 22 절, 9 장 14 절, 9 장 29 절, 10 장 2 절.
- 각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구절들이, 7 장 16 절, 8 장 1 절, 8 장 20 절, 9 장 1 절, 9 장 13 절, 10 장 3 절 입니다.

-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이고,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몇가지를 따라 합니다. 7 장 12 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7 장 22 절: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8 장 7 절: 개구리가 물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믿는 마술사들에게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땅의 먼지를 이로 만드는 것은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술사들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는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8 장 18-19 절). 개구리 재앙에서도 마술사들은 개구리가 물위로 올라오게는 하지만 물러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죽게 됩니다 (8 장 13 절)
-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적들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작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파리떼 (8 장 22 절), 짐짐승의 죽음 (9 장 6 절), 종기 (9 장 11 절), 우박 (9 장 26 절), 어두움 (10 장 23 절) 과 같은 재앙에서는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앙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고센지역을 따로 보호하셨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8 장 26 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돌로 칠 수도 있다는 모세의 말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모릅니다.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피를 뿌리는 의식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습니다.
- 재앙들이 진행되면서 보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다섯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의 행위를 통해 재앙을 불러 일으키시거나 직접 하셨는데, 여섯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불러 오시는데, 모세의 행동들이 실제적인 재앙의 시발점이 됩니다. 화덕의 그을음을 뿌려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장면 (9 장 10 절), 지팡이를 뺏어서 우박을 내리는 장면 (9 장 23 절), 지팡이를 내밀어 바람이 불어 메뚜기를 몰고 오는 장면 (10 장 13 절), 하늘로 팔을 내밀어 어둠이 내리게 하는 장면 (10 장 22 절).
- 네째 재앙이후로 바로의 반응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가 이후로는 모세와 타협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집트 땅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나 (8 장 25 절), 장정들만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제안합니다 (10 장 11 절).
- 9 장 20 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 일부는 우박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들과 짐승을 피하게 합니다. 9 장 27 절에서 바로가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앙중에 바로와 신하들 중에도 변화가 있음을 봅니다.